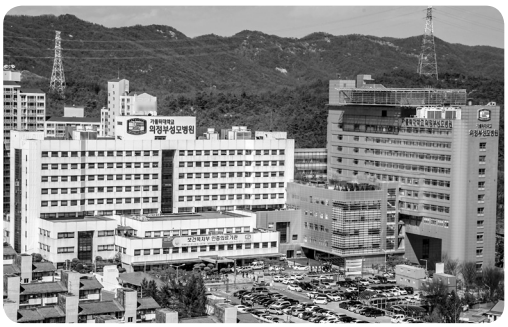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경기 의정부시 천보로 271, 신관 외상센터 5층
대표전화 : 031-820-3355,(7001~7003)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는 1984년 12월에 첫 환자의 방문을 시작으로 호스피스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2018년 5월 30일 지정서류를 접수하고 6월 12일 실사를 받는 순간까지 34년의 역사를 배경으로 곳곳에 호스피스 환자들의 손을 잡고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호스피스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2017년 9월 호스피스센터 건립을 위해 구성인원들이 꾸려지고 분주히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도 병동을 오픈한다는 설레는 마음을 갖고 산재되어 있는 호스피스 대상 환자들과 함께 모여 생활을 할 병동에서의 꿈을 쌓아가고 있어 지친 몸과 마음에 작은 위로를 받고 있었습니다.

가톨릭 의료기관의 이념을 바탕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체현하며, 생명의 삶을 삶과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고민이 깊어지던 시간이었습니다.

의정부성모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는 산재되어 있는 환자들과 함께한 30여 년의 시간을 밑거름으로 2018년 5월 21일 13병상으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지침규정에 맞춰 우리병원은 4인실의 병상 3개와 1인실 1개, 가족실, 요법실, 상담실, 목욕실, 그리고 임마누엘이라 불리는 임종실 등 작지만 환자들을 위한 공간들이 만들어 지면서 마음으로부터 고생했던 시간보다는 뿌듯함의 시간으로 바뀌어 가는 마음의 변화들을 느끼며 하루하루 함께 준비하는 모든 이들을 성장시키고 있었습니다.

아직 지정을 받지 못하고 지정의 소식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우리 호스피스센터는 곳곳의 호스피스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완화의료와 봉사들을 성실히 그리고 열심히 실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1시 30분이면 종교를 불문하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하는 자비의 기도는 많은 이들에게 위안과 지지를 주고 있으며 봉사 활동 중간 중간 봉사자들이 만드는 향나무 묵주는 임종자들의 손에 걸어져 마지막 길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변의 작은 약수터도 있고 옥상 정원도 마련되어 있어 침상 생활이 전부인 환자들에게 자연을 선사하는 시간도 호스피스 환자들의 삶의 소중하게 기록되어 지고 있습니다.

오픈하고 이제 겨우 얼마 되지 않은 시간 속에서 임종실이 비워질세라 연이어 하느님 손

을 붙잡고 떠나시는 환자분들을 위해 아직 익숙하지 않은 죽음들을 맞으며 어설프지만, 의정부성모병원 호스피스만의 임종 프로토콜을 영성부 수녀님들과 함께 진행하며,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와 사별을 해야 하는 가족들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센터의 모든 이들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니 할 일도 노력해야 할 일도 많지만, 이미 튼튼한 뿌리를 두고 있는 여러 곳의 호스피스의 발자취들이 있기에 두려움보다는 희망을 안고 한발 한발 내디디려고 합니다.

가끔 환자분들이 마음이 참 편안하다는 말씀을 건네십니다. 그럴 때마다 비로소 우리가 머무는 이곳이 참으로 편안한 곳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기도로 이끌려지고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분의 은총이 평화롭게 자리할 수 있도록 시작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함께 소중한 당신"이라는 cmc 이념처럼 호스피스센터의 모든 이가 소중한 곳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회원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신입회원

- 부산메리놀병원 : 김태림, 남순연, 이정숙, 정군자, 이영숙, 전귀숙, 전연순, 김경란
- 국제성모병원 : 권정민, 김미연, 심지연, 김계수, 김시내, 박순란, 유현수, 이강숙, 이경석, 이상화, 이윤자, 이춘자, 전연화, 전인숙
- 부천성모병원 : 이정민, 유영란, 반미숙, 임은선, 임은영, 김진명
- 성가복지병원 : 조순자
- 서울성모병원 : 류혜자, 정영기, 김성숙, 김수영, 김희정, 조동연, 신동주, 민옥경, 유미령, 김은주, 최한경, 이희생, 솔향자, 김현정, 임춘영
- 대구대교구 가정호스피스 : 신귀숙
- 대구 파티마병원 : Sr.박명희, 구영주, 우경주, 이귀련, 임용득. 한상옥
- 성바오로병원 : 정후남, 정혜영
- 대전성모병원 : Fr.김은석, Sr.김옥경, 윤진화, 성금선, 김수민, 심수연, 최유경
- 성빈센트병원 : 신미자, 윤지단, 이용아, 박영래, 김은선, 김기열, 김영례, 윤현숙, 황정희, 홍진희
- 부산성모병원 : 강동일, 백현정, 최미애, 이미자, 김명순, 허채현, 박임선
- 익산성모병원 : 박임숙, 박수경, 유미현